

크로포트킨에서 레닌으로

—송영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 다시 읽기*

이민영**

〈차례〉

1. 서론
2. 제국주의 대항의 논리로써 크로포트킨
3. 상호부조론의 수정과 후쿠모토이즘의 수용
4. 후쿠모토를 경유한 레닌과 송영의 초기 희곡
5. 결론

국문초록

이 글은 카프의 기관지 『예술운동』 창간호에 수록된 송영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1927.11.)을 다시 읽음으로써 제1차 방향전환 당시 카프의 이론적 노선과 그것이 송영의 희곡에서 구현되는 방식을 규명한 연구이다.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은 그동안 습작기의 작품, 동화극이라는 이유로 송영의 초기 희곡 중에서도 특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작품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크로포트킨 수용 맥락, 1927년 카프 내부에서 벌어진 불세비즘과 아나키즘 논쟁, ML계 제3전 선파의 이론적 노선, 카프의 조직운동과 레닌의 조직론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며 읽을 때, 작품이 지닌 온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작품은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자들이 열광했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을 아나키즘과 조합주의 배제라는 카프 지도부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정해나가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후쿠모토를 경유한 레닌의 조직론이 송영의 초기 희곡에서 구현되는 방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오스기 사카에와 야마카와 히토시의 크로포트킨 번역과 후쿠모토 가즈오에

* 이 논문은 2017년 일본 문부과학성과 일본학술진흥회의 지원을 받은 연구 「日本で翻訳されたクロフトキン思想が朝鮮プロレタリア文学に及ぼした影響」(17H07294)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8년 11월 24일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제8차 한국문학언어학회 학술대회(현대문학)에서 발표한 「송영, 오스기 사카에 그리고 크로포트킨」에서 아이디어의 일부를 가져왔다.

**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연구원

의한 레닌의 번역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운동과 카프의 조직운동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송영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은 1920년대 사회주의 이론의 수용사적 측면과 사회주의 인식론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

주제어: 레닌,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 상호부조론, 송영, 『예술운동』, 카프, 크로포트킨, 후쿠모토이즘

1. 서론

1920년대 후반 카프의 극문학에 대한 논의는 창작된 희곡의 빈약한 수나 카프 문학 특유의 이념성을 고려하더라도 ‘계급주의 문학’이라는 말로 지나치게 단순하게 정리된 측면이 강하다. 이것은 1927년 방향전환 후 카프의 성격으로 규정된 불세비키적 계급주의라는 키워드를 작품에 그대로 대입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카프 문학을 이렇듯 계급주의 문학으로 통칭해버릴 때, 각 작품이 지닌 심층적 의미는 간과될 소지가 크다. 이것은 카프의 문학이 계급주의 문학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 다만, 카프 문학은 곧 계급주의 문학이라는 일반화된 도식이 당시 사회주의 노선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측면, 작가들의 사상적 지향의 차이, 카프 방향전환의 사상적 배경, 카프의 이론투쟁과 작품의 내적 상관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명할 이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렸다는 것이다.

카프문학에 대한 이러한 도식주의는 개별 작품을 해석할 때도 여지없이 작동한다. 1920년대 후반 카프를 대표하는 극작가로 부상한 송영의 작품에도 이 문제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송영의 초기 희곡으로 거론되는 세 작품 <모기가 업서지는 까닭>(『예술운동』 창간호, 1927.11.), <正義와 「칸바스」>(『조선문예』1, 1929.5.), <阿片쟁이>(『대조』1, 1930.3.)는 작품의 심층적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기도 전에 카프의 계급의식을 담아낸 작품이라는 점만 강조된 채 카프 문학의 의미망 속에서 희석되었다.

카프의 대표 극작가답게 송영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진척되었다. 1930년대 풍자극에 대한 논의가 특히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며, 국민연극과 해방기 활동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 송영의 초기 희곡들은 의외로 송영 연구의 도입부에서 간략하게 설명된 채 지나쳐갔다. 이 시기 송영의 희곡에 대해 유민영은 ‘김영팔과 함께 카프 시대에 프롤레타리아 희곡이라는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¹⁾고 정리했으며, 서연호는 ‘습작 수준을 넘지 못했다²⁾고 한계를 규정지으며 소략한 해석을 남기는 데 그쳤다. 한편 양승국은 ‘계급의식의 노출과 작가의 이념 전달³⁾, 김재석은 ‘계급의식의 고취와 운동으로서의 연극⁴⁾으로 1920년대 카프 희곡의 가치를 정리함으로써 문학운동의 관점에서 이 시기 송영의 희곡에 가치를 부여했다. 이러한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송영의 1920년대 후반 희곡들은 주로 1930년대 풍자극을 부각하기 위한 ‘전(前) 단계’ 정도의 의미에서만 소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1927년경부터 김영팔이 배제되고 송영이 카프의 대표적인 극작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를 비롯해 송영 문학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도 이루어지기 어렵다.

1927년 11월 『예술운동』에 발표된 <모기가 업서지는 까닭>도 1920년대 후반기 송영의 다른 희곡들과 마찬가지로 계급의식이라는 작가의 이념이 노골적으로 발화된 계급문학 초기 작품으로 정리되었다. 호평보다는 혹평에 가까운 지적을 받아 온 이 작품은 극 전개의 작위성, 이념의 노골적 노출 등의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양승국은 ‘의지를 지닌 인물들 간의 충돌이 전혀 없어 극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작가의 이념이 극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⁵⁾고 지적했으며, 임혁도 ‘현실에 뿌리내리

-
- 1) 유민영, 「동양적 윤리관과 세태 풍자극」,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④-송영』, 태학사, 1996, 11면.
 - 2) 서연호, 「송영 희곡론」, 위의 책, 92면.
 - 3) 양승국, 「계급의식의 무대화, 그 가능성과 한계」, 위의 책, 25-26면.
 - 4) 김재석, 「송영의 희곡세계와 그 변모과정」, 위의 책, 55-62면.
 - 5) 양승국, 위의 책, 298-299면.

지 못한 채 이념의 전달만을 위해 창작된 텍스트'라며 작품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착취계급을 상징하는 모기왕의 몰락을 유일한 목표로 극의 나머지 세부 설정과 전개가 그에 복무'하고, '필연적 계기 없이 등장한 별나라와 개미나라 대장은 오로지 모기왕으로 대변되는 착취계급에 대한 윤리적 비판의 기능만을 수행하며, 이마저도 직접적인 대사 전달로 이루어져 비(非)극적인 장면으로 처리되었다⁶⁾고 평가했다. 이미원은 사실적 재현이 주류를 이루는 당시 희곡의 경향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 작품을 '풍자극의 범주에서 읽어냈는데, '현실과의 대비라는 풍자의 묘미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아 작가의 메시지를 찾기 힘들다'⁷⁾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은 동화극이라는 표제에 주목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화극의 특성으로 작품이 지닌 극작술의 한계를 해명하려 했다. 또한 『예술운동』이라는 잡지의 성격을 고려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알레고리로, 성인 교육극의 하나로 작품이 지닌 가능성을 읽어내려고 했다.⁸⁾

정리하자면, 이 작품에 대한 그간의 평가는 사회주의적 계급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목적문학이라는 점을 전제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습작기의 한계로 인해 극작술에 치명적 결함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작품의 개연성에 문제가 있으며, 계급의식이 노골적으로 발화되었다는 평가가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하나는 동화극이라는 표제에 주목한 경우이다. 그러나 후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다룰 때 동화극은 곧 아동극이라는 도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화극과 아동극을 동일시하는 태도는 '요정 이야기(fairy tale)'라는 서양의 개념이 일본에서 동화(童話)라는 단어로 번역되면서 빚어진 문제를 그대로 수용한 결과이다. 페어리 테일이 민담에서 유래된 만큼 동화의 독자는 아동에 한정되

6) 임현, 「송영 문학에 나타난 '체험'과 현실인식의 관련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36-37면.

7) 이미원, 「송영 프로희곡 연구」, 앞의 책, 106-107면.

8) 이재명, 「송영의 이념극과 희극 양식」, 위의 책, 118-119면.

지 않는다. 따라서 송영이 아동극 창작에 심혈을 기울인 작가인 것은 분명하지만, 작품의 표제가 동화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작품을 아동문학의 카테고리에 한정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작품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 작품의 우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극작술의 한계라는 문제는 전제하고서라도, 사실적 재현이 주류였던 당대 분위기에서 송영은 왜 우화를 활용한 동화극을 창작했는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송영의 우화가 드러내는 세계를 되짚어봄으로써 송영의 의도를 다시 확인하고자 한다. 이후 설명하겠지만 송영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20년대 진화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주의운동의 맥락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읽을 필요가 있다. 1920년대 초반 식민지 조선의 크로포트킨 수용 맥락, 1927년 불세비즘과 아나키즘 논쟁,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 당시 ML계 제3전선파의 이론적 노선, 카프의 후쿠모토이즘과 레닌의 수용맥락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작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며 작품을 읽어나간다면 '미진한 극작술을 가진 소품'으로만 설명되던 기존의 해석을 넘어, 이 작품이 지닌 본질적 의미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하며 송영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을 다시 읽는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제1차 방향전환 직후 카프 이론이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면모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한 1920년대 후반 카프의 극작가로 김영팔이 배제되고 송영이 급부상하게 된 원인도 일정부분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카프의 조직운동 속에서 송영과 그의 문학 전반에 대한 심층적 조망 역시 가능해지리라 기대한다.

2. 제국주의 대항의 논리로써 크로프트킨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은 모기왕과 모기대신을 지배계급으로 모기 백성들을 피지배계급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모기의 몰락을 통해 카프의 계급의식을 담아낸 작품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누차 지적되었듯이 모기왕과 모기백성의 대비는 뚜렷하지 않은데, 이러한 점은 이 작품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대립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우화에는 모기, 벌, 개미 세 종류의 곤충이 등장한다. 이들 중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모기이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는 계급문학의 도식에 따라 모기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결 구도에 초점을 맞추고 모기나라의 몰락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왔다. 이렇게 본다면, 모기들의 대결은 뚜렷하지 않아 모기나라의 몰락은 개연성을 잃고 만다. 물론 모기왕과 모기대신이 지배계급의 부패와 타락, 부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백성은 굶어 죽어가지만 왕과 대신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데 급급한 인물로 형상화된다. 왕과 대신의 ‘남산만 한 배는 ‘힘없이 기어들어 오는’ 부엌데기, 창고지기, 시너모기들의 모습과 대비되면서 지배계급의 부도덕성을 강조한다. 김재석도 지적했듯이 이렇듯 ‘지배층을 극단적일 정도로 부정적으로 그림으로써 모기왕과 모기대신은 지배계급의 유형적 인물로 형상화되었다.’⁹⁾ 반면 피지배층으로 설정된 모기들에게서 계급적 특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문제적 상황을 파악한다거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모기나라는 계급 대립이 없는 이상적 사회로 진화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다. 따라서 프롤리아트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적 전망에 비추어본다면 이 작품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이 결코 아니다.

9) 김재석, 「송영의 희곡세계와 그 변모과정」, 위의 책, 55-56면.

모기의 서사에만 주목하면 벌과 개미는 서사의 개연성을 파괴하는 불필요한 인물로 이해된다. 그런데 벌과 개미에 집중하게 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물론 (벌과) 개미는 『이솝우화』의 부지런한 이미지와 중첩되면서 건강한 노동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거나, 일하지 않는 모기 지배층과 대비돼 노동의 가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사실 이 시기 우화에서 벌과 개미가 그러한 상징성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령, 조용진은 <춘>(『신소년』, 1927.3.)에서 벌을 폄박당하는 자로 그렸는데, <춘의 화원>(『신소년』, 1927.5.)에서는 폄박하는 자로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부여했고, 오경호는 <노리團>(『신소년』, 1929.7-8.)에서 강자와 약자의 상징으로 벌과 개미를 대립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작품 속 벌과 개미는 우리가 현재의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형화된 상징의 틀을 벗어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송영은 “왜 벌과 개미를 등장시켰을까?” 혹은 왜 다른 곤충이 아니라 “굳이 벌과 개미여야만 했을까?” 이것을 해명하는 것에서부터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1920년대 초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사회주의자들이 채택했던 이론 중 대표적인 것으로 크로포트킨(Pjotr Alekseevich Kropotkin, 1842-1921)의 상호부조론(*Mutual Aid : A Factor In Evolution*)을 들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윈의 진화론에서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이라는 진화의 법칙을 뽑아내 약육강식, 적자생존, 우생열패의 논리로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은 이러한 다윈의 진화론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운동가들에게 혁신적인 과학이론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진화가 점진적 발전이 아닌 혁명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크로포트킨의 주장은 고토쿠 슈스이(幸徳秋水, 1871-1911),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1885-1923),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1880-1958) 등 일본의 사회주의 계열 운동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식민지 조선의 사회운동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은 주로 오스기 사카에와 야마카와 히토시의 번역을 통해 유입되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수용은 일본화된 맥락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크로포트킨의 「청년에게 고향(Aux Jeunes Gens)」은 오스기 사카에의 일역을 기준으로 김명진, 無我生(유진희), 이성태 등에 의해 번역되었으며,¹⁰⁾ 오스기 사카에가 쓴 『크로포트킨 연구(クロポトキン研究)』(1920) 2장이 윤자영에 의해 「상호부조론」(1921)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야마카와 히토시의 크로포트킨 해석이 신백우에 의해 상호부조론으로 소개되었다. 그 외에도 크로포트킨은 『개벽』, 『공제』, 『아성』 등 사회의 개조와 계몽을 목적으로 발행된 여러 잡지와 강연회, 신문 등에서 반복적으로 소개되었다. 이성태의 경우 ‘혁명도 자연계 및 인류사회 현상의 다른 모든 진화와 같은 한 보편적 원칙¹¹⁾이라는 크로포트킨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혁명을 진화의 계기로 확장¹²⁾했는데, 이러한 해석 방식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이 수용되는 맥락을 잘 보여준다. 즉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은 계몽의 논리로, 사회의 급속한 개조를 위한 유용한 이론으로 주목받았던 것이다. 특히 상호부조론은 제국주의에 대한 극복과 탈식민화가 요구되던 시점에서 진화론의 극복이라는 당시의 사상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 이론으로 설득력을 얻었다.¹³⁾

10) 김명진 옮김, 「青年에게 고향(크로포트킨)」, 『동아일보』, 1920.5.22.; 無我生(유진희) 옮김, 「青年에게 訴함」, 『공제』 제7-8호, 조선노동공제회, 1921.4-6, 63-66면, 99-107면.; 이성태 옮김, 「青年에게 訴함」, 『신생활』 제6호, 신생활사, 1921.6, 80-89면.

11) 이성태, 「크로포트킨 學說研究」, 『신생활』 제7호, 신생활사, 1922.7, 34면.

12) 1920년대 초 사회주의 비평 담론장에서 진화론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사회를 위한 방법론적 전략으로 혁명에 대한 사유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이만영, 「1920년대 초 사회주의 비평 담론과 진화론 인식」, 『현대소설연구』 제78호, 현대소설학회, 2020.

13)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과 수용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相互扶助論』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9집, 중국사학회, 2005.;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5집, 일본사학회, 2012.;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

크로포트킨은 『상호부조론』에서 ‘적자(適者)’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진화할 수 있다는 다윈식 적자생존의 논리와는 다른 개념이다. 그는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과 서로 돕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적자(適者)인가라는 질문을 자연을 향해 하게 된다면, 상호부조의 습관을 지닌 동물이 확실한 적자임을 알 것¹⁴⁾이라고 주장했다. 크로포트킨은 생존과 진화의 요인으로 힘이 아닌 상호부조의 정신을 발견하고, 상호부조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이타심이라는 본능을 꼽는다. 그는 이러한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무척추동물부터 조류, 포유류, 미개인과 야만인, 중세 길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학적, 역사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개미와 벌의 군집 생활은 바로 이러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의 시작, <동물계의 상호부조> 첫 장에서 무척추동물의 생물학적 사례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었다.

하나의 개미집을 예로 들면, 자손을 기르는 일이나, 음식을 모으는 일이나, 집을 짓는 일이나, 진딧물을 기르는 일이나, 그밖의 일체의 일이 일의적 상호구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포렐의 말처럼, 많은 종의 개미들 사이에서는 동료가 음식을 청하면 이미 삼켜 다소 소화된 것을 같은 무리와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이 생활의 주요하고 근본적인 특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중략)… 만약 어느 한쪽이 굶주려 있고, 다른 한 마리가 배부른 상태라면, 결코 그것을 거절하는 일이 없다. …(중략)… 만일 배부른 개미가 무리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기적인 것을 한다면, 그 개미는 무리로부터 적 또는 적 이상의 것으로 취급 받을 수 있다. …(중략)…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는 꽤 격렬한 전쟁도 일어나고, 또 그 전쟁 시에는 너무나 잔혹한 행위도 발견되지만, 같은 집단

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박종린, 「1920년대 크로포트킨의 수용과 『청년에게 호소함』의 번역」, 『사학연구』 제142호, 한국사학회, 2021.

14) クロポトキン, 大杉栄 訳, 『相互扶助論(進化の一要素)』 31版, 春陽堂, 1924, 24-25면.

안에서는 이미 습관이 된 자기희생, 상호구조가 실제로 행해지고 있다. 검은 개미나 흰개미는 「홉스류의 전쟁」을 배척해서, 더군다나 그 때문에 오히려 행복을 얻고 있다.¹⁵⁾ (중역·밑줄·인용자)

꿀벌도 이와 같다. …(중략)… 꿀벌은 오로지 상호부조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대발전을 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찬탄할 만한 지력을 얻고 있다. 그들은 공동의 노동을 함으로써 개개인의 힘을 몇 배로 높여 쓴다. 또한 필요한 종류의 일을 할 때도 각 꿀벌의 재능에 따라 일시적으로 분업하여, 독립적 동물이 아무리 강대하고 또 아무리 잘 무장된 경우라도 도저히 이루지 못할 정도의 안전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¹⁶⁾ (중역·밑줄·인용자)

크로포트킨의 글에서 상호부조는 생명을 유지하고, 종을 보존하고, 각각의 종들이 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진화의 중요한 한 요소로 다루어진다. 특히 소화 중이던 먹이까지 뱉어내 배고픈 동료에게 먹이는 이타심이라는 습성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를 이야기한 홉스나 다윈의 생존경쟁과는 또 다른 ‘진화의 한 방식’을 보여주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개미와 벌의 ‘공동 노동과 ‘분업’의 생태는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윤자영과 신백우는 이러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중 개미와 벌의 생태에 주목한 대표적인 경우이다.

數限업는 爭鬪와 殺戮이 動物의 異綱 中에서 行한다 할지라도 그와 同時에 同程度 或은 그 以上の 相互扶助, 相互支持, 相互防護라 하는 現象이 同種의 動物間들에 或은 同一團體의 動物間에 行하는도다. 社會的 精神은 相互鬪爭와 共히 自然界의 一法則이로다. …(중략)… 『不斷코 相互鬪鬪를

15) 크로포트킨, 위의 책, 34-36면.

16) 크로포트킨, 위의 책, 38-39면.

일삼는 者와 恒常 互相扶助를 行하는 者의 어느 것이 適자가 될가』하는 質問을 自然界에 發한다하면 余等은 卽地에서 相互扶助의 習慣을 有한 動物이 眞正한 適子라 하는 解答을 得할지니라. 그러한 動物은 確實히 生存의 多占을 得할 機會를 得하며 또한 가장 好成績으로 智力의 發達을 遂하는도다. …(중략)… 相互扶助는 勇氣 振興의 第一條件인 相互信賴가 되며 그리하여 此 自由發意心은 勢力 發達의 第一條件이라. …(중략)… 蠶는 他的 權力命숨에 依하여 動하는 자—아니오 社會全體의 幸福을 爲하여 各自의 自由한 思想으로 各各 그 事에 當하는 自由任意로 行動하는 事實이 明白하게 되었다도다. …(중략)… 何等 他人의 意志權力의 交渉을 맞지 아니하고 다만 萬事를 各個의 自由合意와 自由發意에 依하여 純純히 處理하는 이 生活이야말로 …(하략).¹⁷⁾ (강조. 오스기 사카에의 설명, 중역-윤자영, 밑줄-인용자)

윤자영은 오스기 사카에가 쓴 『크로포트킨 연구』 중 2장에 수록된 「동물계의 상호부조-생존경쟁에 대한 한 가지 새로운 학설(動物界の相互扶助-生存競争についての一新説)」(1915.10.)을 소개했다. 이 글에서 오스기는 다윈의 진화론과 다윈주의자 헉슬리와는 또 다른 ‘진화의 한 방식’으로 크로포트킨을 다룬다. 이 글에는 개미와 벌을 예시로, 같은 집단 내에서는 상호부조(相互扶助), 상호지지(相互支持), 상호방호(相互防護)의 현상을 볼 수 있다는 크로포트킨의 학설에, 타인으로부터 지시된 ‘권력 명령’, ‘의지 권력의 개입 없이 각자가 자유로운 사상으로 자유임의(自由任意), 자유합의(自由合意)로 행동한다는 오스기의 설명이 덧붙었다. 여기에는 특히 개인의 무의식적 본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자유발의심(自由發意心)’이란 표현이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타심에 대한 오스기식

17) 大杉榮, 『クロボトキン研究』 33版, アルス, 1923, 77-83면.; 윤자영 옮김, 「相互扶助論」, 『아성』 제4호, 조선청년회연합회, 1921.10., 25-29면.; 『조선일보』에 연재된 역사미상의 글도 윤자영이 번역한 오스기 사카에의 글과 같은 부분이다. 「『크로포트킨』의 生物學的 社會觀」, 『조선일보』, 1923.11.30.-12.10.

번역이다. 상호부조에 대한 오스기의 이러한 해석은 이후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 상호부조론의 핵심 논점으로 수용된다.

蟻의 社會와 가티 蜂의 社會도 互相扶助의 結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彼等은 共同으로 勞動하여 個個의 力量을 二倍 或은 三倍까지 使用하여도 人間社會에서 行하는 分業가티 資本家は 終生을 資本家로 平民 勞動者는 生世한 後로 死亡할 時까지 貧困勞動者가 되던지, 甲은 一生을 機械에 油를 注하면 乙은 北邙山에 돌아가기까지 機械자루(柄)을 把握하며 丙은 三十年間 小使에 勤續하고 丁은 五十年間 乞食을 勤續함과 같이 안습니다. 蜂의 社會에서는 自己 生活할 만한 무삼 事爲던지 堪耐할 才能이 있음으로 各各 適當하고 必要하게 分業합니다. 또 敵에 對한 防衛 攻擊의 材料는 언제던지 完全히 設備되었으므로 一個一個가 各各 散在하여도 生活하여도 다른 動物은 到底히 企及지 못할 安全과 幸福이 蜂의 社會에도 在함은 곳 互相扶助와 自由行爲인 結果올시다. …(중략)… 頭上에 花粉을 着한 것은 正直한 勞動의 證據올시다. 文明이며 進化이란 人間社會에서 ○○○○○○○○○○○ ○○○○○○ 얼마나 光榮스러운 制度인가—文明의 產物이 이러한 것이올시다.¹⁸⁾ (강조·야마카와 히토시의 첨언, 중역·신백우, 밑줄·인용자)

이 글은 『동물계의 도덕(動物界の道德)』 중 6장 「개미의 사회생활(蟻의 社會生活)」과 7장 「벌의 사회생활(蜂의 社會生活)」을 신백우가 번역한 것이다. 이 글도 벌과 개미 사회를 예로 ‘상호부조와 자유 행위의 결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다는 크로포트킨의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저작이 「공산당 선언」의 일본어 최초 번역자인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1871-1933)와 야마카와이즘(山川均主義)으로 이야기되는 야마카와 히토시가 번역의 방식으로 저술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18) 堺利彦 編, 山川均 述, 『動物界の道德』, 有樂社, 1908, 48-51면.; 畊夫(신백우) 옮김, 「蟻의 蜂의 互相扶助」, 『공제』 제7호, 조선노동공제회, 1921.4, 46-47면.

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 두 사람의 관점이 덧붙여져 있다. 위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개미와 벌의 공동 노동과 분업의 생태를 자본가와 노동자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와 대조하는 부분, “각 개체가 산재해서 생활”한다는 부분, 벌의 ‘정직한 노동’을 거론한 부분 등은 모두 크로포트킨의 책에는 없는 부분이다. 마지막에 문명의 산물로 인간사회의 제도를 찬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중간에 ○란을 되살려보면 실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노동의 결과를 횡령하고 있는 돈 가진자, 자본가의 재산을 수호하는 것이 정부나 법률이고, 도둑맞은 물건을 되찾으려 걸려드는 모반인을 응징하는 것이 재판이나 형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¹⁹⁾ (번역·인용자)

○란에는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 문제, 자본가를 수호하는 정부와 법률에 대한 비판이 역설화법으로 적혀있다. 산재된 개인들의 자율적 연대를 통해 정부와 제도를 비판하는 이 논리는 경제투쟁에 집중했던 초기 일본 사회주의운동의 아나키즘적이고 조합주의적인 성격과 닮아있다.

다시 작품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모기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의 첫 장, 「동물의 상호부조」 <개미와 꿀벌>의 사례에 나오는 개미와 벌에 대비되는 곤충으로 선택된 것은 아닐까. 다시 말해, 모기와 대비되는 존재로 개미와 벌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 개미와 벌의 이상적 공동체를 부각하기 위해 모기가 선택된 것이라면 이 작품은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 크로포트킨은 개미와 벌의 사회가 인간의 문명만큼이나 찬란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이유로 공유와 분배, 이타심에 기반한 상호부조의 정신을 들었다. 소화시키던 음식을 뱉어내 동료에게 먹이는 개미의 행위와 같이, 공동의 복리를 위한 자기희생이 공동체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모기는 (자본가의 착취를 연상

19) 堺利彦 編, 山川均 述, 위의 책, 51면.

시키는) 피를 빼는 습성도 있지만, 개미나 벌과 달리 생태적으로 먹이를 공유하며 사는 곤충이 아니다. 모기왕은 같은 종족인 백성들의 피를 빼앗고, 부하 모기들까지 잡아먹는 존재로 그려진다. 모기왕은 크로포트킨 식으로 말하면, “적(敵), 적보다 더 나쁜 존재”이다. 공유와 분배, 이타심이 전혀 없는 모기나라는 진화를 위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진화하지 못하는 종은 결국 도태되거나 멸종하게 된다. 극의 결말,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3. 상호부조론의 수정과 후쿠모토이즘의 수용

이타심이 없고 상호부조하지 않는 모기나라는 진화의 과정에서 도태되고 멸종되었다. 그렇다면 개미나라와 벌나라는 어떠한가. 이들의 사회는 크로포트킨이 제시한 상호부조의 이상적 공동체인가.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송영이 그린 세계와 (번역된) 크로포트킨의 사상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다. 송영은 크로포트킨의 진화의 조건 중 중요한 요소를 하나 삭제한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의지’이다.

벌나라와 개미나라는 “강하고 편안해서 굶는 놈도 없거니와 나쁜 놈도 없는”²⁰⁾ 이상적인 곳으로 그려진다. 이것은 언뜻보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와 자유행위의 결과로 완성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와 닮아있다. 그러나 송영의 벌나라와 개미나라는 이러한 크로포트킨의 이상적 공동체의 사례로부터 산출되었으나, 그와는 전혀 다른 사회로 그려진다. 자유의지가 자발적 개인의 연대를 끌어내고 이를 통해 혁명과 같은 급속한 진화의 논리를 가능하게 했던 식민지 조선의 크로포트킨 독해에서 자유의지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은, 크로포트킨으로 대표되던 아나키즘적 세계관

20) 송영, <모기가 업서지는 까닭>, 『예술운동』 창간호, 동성사, 1927.11, 84면.

과 초기 사회주의운동에 내재되었던 아나키즘적 성격이 부정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내면에서 무의식적 본능의 형태로 산출되는 자유의지는 1920년대 초반 작가들이 그려냈던 개인의 자각, 아나키즘의 반항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에서 이 자유의지는 삭제된다. 대신 강력한 지도부의 존재가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두 大將. 우리나라에서는 놀고 남의 피만 빼라다 먹는 놈들은 생전 처음으로 구경을 했기로 우리나라 임금님께서 특별히 동물원에 두고 구경을 식힙니다.

王. 응

두 大將. 별지 안코 먹으려는 놈과 가만히 안져서 호강하려는 놈은 낫이 낫부담니다.

王. 무어야? (상을 썩그리고 더 괴운을 채리지 못하여 뒤로 잡가지며) 아— 배곱하— (죽었다)

(그러자…… 전후좌우에서 와하는 소리 나며 세상이 뒤집히는 듯이 되었다)

병신된 군사들이 짹—올너온다 시녀와 부엌디기와 창고직이와 모다 올너온다.

두 大將. (크게) 인제부터는 세상 사람들 편하게 잠을 자게 되었다. 모기약과 모기향이 소용이 업게 되었다.

(손벽 고향)

—막—²¹⁾ (강조·밑줄·인용자)

구조를 요청하러 간 모기들은 동물원에 갇히고, 모기나라는 외부의 원조를 얻지 못하고 만다. 이것은 벌과 개미 개인들이 자유의지로 판단해 내린 결론이 아니다. 벌과 개미대장이 모기왕에게 행하는 윤리적 비판도

21) 송영, <모기가 업서지는 까닭>, 위의 책, 86면.

마찬가지이다. 여기에는 ‘임금의 판단과 지도라는 상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의지로 부터 발현된 이타심을 기초로 조성된 것이 아니라, 개인을 하나로 모으고 지도하는 임금으로 명명된 지도부에 의해 완성된 곳이다. 송영이 그려낸 이러한 세계는 일체의 권력을 부정하는 아나키즘 정신에 위배된다. 즉 별과 개미나라의 임금이라는 존재는 이 작품이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그것과 수정하고 결별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산발적 개인들의 자유의지, 개인들의 연대를 삭제하고, 강력한 지도부에 의해 지휘되는 조직의 형태가 제시된 것이다.

여기서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이 수록된 지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은 카프가 제1차 방향전환을 선언한 『예술운동』 창간호에 실려 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작품에서 재편된 카프 지도부의 입장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백철은 『예술운동』이 ‘1927년도 전반기 카프 문예운동의 방향전환론이 수정되는 단계를 보여주는 잡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²²⁾고 기술했다. 실제로 『예술운동』은 ‘새 운동으로의 전환’이라는 카프의 운동방침을 제시하고 지도하는 ‘지도 잡자’로 탄생했다.²³⁾ 카프는 1927년 9월 임시총회를 열고 강령을 개정하면서 운동의 새로운 방침을 정리하고,²⁴⁾ 11월 15일 『예술운동』을 발간했는데, 잡지의 발간은 9월 카프 임시총회(제1회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었다. 검열을 의식해 동경지부에서 1호를 발행하기로 하고 모든 사무를 동경지부가 담당하기로 했으며,²⁵⁾ 그 결과 김두용을 대표로 편집과 발행을 모두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이하 카프) 동경지부가 담당하게 되었다. 창간호의 표지는 일본프

22) 백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98면.

23) 「編輯後記」, 『예술운동』, 앞의 책, 87면.

24) 카프의 새로운 운동 방침은 ‘봉건적·자본주의적 관념을 철저히 배격하고, 전제적 세력과의 항쟁을 기하며, 의식층 조성 운동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朝鮮『프로』藝術同盟方向轉換을 決議」, 『조선일보』, 1927.9.4.

25) 「本部報告」, 『예술운동』, 앞의 책, 53면.

롤레타리아예술연맹(日本プロレタリア藝術連盟) 미술부(R.A.)가 담당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동경지부와 『예술운동』, 카프와 프롤레타리아예술연맹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²⁶⁾

朝鮮의 無産階級運動은 一九二七年을 一期로서 運動의 質的 方向轉換을 敢行하였스며 따라서 無産階級藝術運動에도 質的 方向轉換을 要求하여 이제 朝鮮프로레타리아藝術同盟은 이 轉換의 實行을 期함 …(중략)…
無産階級運動의 方向轉換은 이리해서 部分的 鬪爭으로부터 大衆的 全體的 鬪爭을 意味하는 것이니 即 組合主義 鬪爭에서 政治鬪爭을 意味하는 것이다. …(중략)…

그리하여 우리는 目前에 實例로는 xx의 無産階級은 지금 xx政治에서 쉼르쵸와 民主主義 政治獲得을 現段階로서 戰取하려 하며 지금 그것을 過程하고 있다. 이에 日本의 帝國主義의 支配 및 हे 있는 全朝鮮民衆은 必然的으로 이 政治過程을 過程하여야 하며 그리해서 지금 그것을 過程하고 있다. 『朝鮮의 民族單一黨』을 絶對하며 朝鮮 各地에서 總力量을 이리로 集中식히게 되었다. 이럼으로 朝鮮의 民族의 政治運動으로 展開되었다.

그럼으로 朝鮮프로레타리아藝術同盟은 無産階級運動의 方向轉換과 한 가지로 이 民族의 政治鬪爭 視野를 戰取함으로 이 過程을 過程하여야 한다.

따라서 朝鮮프로레타리아藝術同盟은 無産階級藝術의 任務를 作品行動에 局限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全運動의 總機關이 指導하는 鬪爭을 實行하기 爲하여 우리의 藝術은 武器로서 되지 안흐면 아니 된다. 이리하여 作品 至上인 行動의 階級的 自己疏外로부터 無産階級藝術의 救出을 期한다.

이러한 意味에서 朝鮮프로레타리아藝術同盟의 藝術運動은 政治鬪爭을 爲한 鬪爭藝術의 武器로서 實行된다.

26) R.A.는 일본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 미술부의 약칭이었으며, 일본프로레타리아예술연맹 미술부의 약칭이기도 하다.

朝鮮푸로레타리아藝術同盟은 大衆의게 이 鬪爭意識을 高揚하며 이것의 敎化運動을 爲하여 組織하며 그리하여 우리는 無産階級藝術運動의 歷史的 任務를 다할 것이다.²⁷⁾ (밑줄-인용자)

카프는 「본부초안」을 통해 ‘부분적 투쟁에서 대중적이고 전체적인 투쟁’으로, ‘조합주의에서 정치투쟁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치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적 단계로, 식민지 조선의 총역량을 집중한 ‘민족단일당의 결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공산당의 재건 문제와 관련해 후쿠모토 가즈오(福本和夫, 1894-1983)가 당조직론에서 제시했던 논리를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후쿠모토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식이 집단에 대한 저항 의식을 형성한다고 보는 아나키즘을 자연생장적인 것으로 판단했으며, 지식인 중심의 정치투쟁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²⁸⁾고 주장했다. 그는 ‘보이콧, 태업, 파업, 총파업 등 조합의 형태로 일상투쟁과 경제투쟁에 집중하던 당시 일본 노동계의 아나르코 생디칼리즘(Anarcho Syndicalisme)적 투쟁방식²⁹⁾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사회주의운동에서 조합주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던 아마카와 히토시의 노선과 다른 것이었다. 후쿠모토는 ‘일본의 자본주의가 세계자본주의와 더불어 몰락의 과정에 들어갔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현재는 투쟁의 한 과정으로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해 그는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여기에는 자본주의 타도, 절대적 전제 세력인 천황제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포함된다.), 전무산계급적 정치투쟁으로 운동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후쿠모토는 ‘무산자계급을 지도 세력으로 하는 계급적이고 대중적인 협동전선의 전개를 요구했다.³⁰⁾ 조합

27) 本部草案, 「無産階級藝術運動에 對한 論綱」, 『예술운동』, 앞의 책, 2-3면.

28) 이승진, 「전전 재일조선인 문화운동의 발아와 전개-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맥락에서」, 『일본연구』 제30집,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8, 70면.

29)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93면.

주의에 대한 반대, 경제투쟁이 아닌 정치투쟁으로의 전환, 공동전선의 성립 등을 주장하고 있는 카프의 「본부 초안」에는 바로 이러한 후쿠모토의 논리가 옮겨져 있다.

카프의 「본부 초안」에서 제시된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와 ‘민족 단일당에 대한 요구’는 1926년 11월 발표된 「정우회 선언」³¹⁾부터 신간회 성립에 이르기까지 ML파가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제휴는 서울과 계열의 전진회(前進會)에서 처음 발의되었는데,³²⁾ 이는 1926년 6월 제2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 이후 사회주의운동의 불안한 정황 속에서 사회주의 계열 내부의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즈음 조선공산당에 안광천과 하필원이 가입하게 되면서 민족주의 계열과의 제휴가 본격적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이후 정우회(政友會) 선언과 신간회(新幹會)의 성립으로 이어진다.³³⁾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제휴, 공동전선에 대한 요구’는 정치투쟁을 위해 대중을 훈련하고 조직하기 위해서는 통치 당국이 인정하는 선에서 표면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는 사회주의운동의 정세적 판단에 따라 도출된 것이었다.³⁴⁾

30) 이토 야키라, 후지이 다케시 옮김, 「후쿠모토 가즈오의 사상-공산주의운동의 전환과 그 한계」, 『역사연구』 제14호, 역사학연구소, 2004, 344-345면.

31) 정우회 선언의 핵심 내용은 ‘분열된 사상운동 및 사회운동을 통일하고, 대중의 조직과 교육에 노력하자는 것, 민족주의적 세력과 과도기적·동맹자적 관계를 유지해서 대중의 개량적 이익을 획득하자는 것, 타협과 항쟁을 분리해서 개량과 ××를 대립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正友會의 宣言」, 『조선일보』, 1926.11.18.

32) 김준연, 「朝鮮의 今日問題」, 『현대평론』 제1권 제1호, 현대평론사, 1927.1, 43면.

33) 정우회와 신간회의 이론적 배경으로 후쿠모토이즘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했다. 이형국, 「신간회 창립 전후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최규진,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제32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997.; 전상숙, 「제국과 식민지의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함의와 문제-후쿠모토이즘과 정우회선언의 한일 사회주의 ‘방향전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0.

34) 김준연, 앞의 글, 42-43면.

「정우회 선언」의 집필 대표가 동경 유학생 사회주의 단체 일월회(一月會)의 안광천이었다는 점은 일월회가 주도한 ML파가 조선공산당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핵심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ML파와 대척하고 있던 서울계 김영만이 1928년 3월 모스크바 국제공산당 본부에 올린 보고서에도 상세하게 드러난다. 안광천 그룹(김준연, 최창익 포함)이 조선공산당 내에 비법적인 ‘레닌-마르크스 동맹(ML당)’이라는 종파를 창설, 민족혁명당의 조속한 조직을 지향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트로츠키-후쿠모토파의 좌익 사상으로 은폐된 우익 기회주의적 투항 정책이라는 것이다.³⁵⁾ 송영이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을 때, 그는 안광천, 하필원, 김종범 등 재일조선노동조합총연맹(在日朝鮮勞動組合總連盟)의 사람들과 교류했는데,³⁶⁾ 이들은 모두 북성회(北星會)의 관계자들이며, 일월회를 조직해 국내 공산당 재건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하필원은 『예술운동』을 발행한 인쇄소 동성사의 창립 이사 중 한 명이었다.³⁷⁾

카프 소속 개인들이 가졌던 관점이나 사회주의 계열의 차이 등을 섬세하게 살핀다면 작가나 작품마다 다양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1927년 하반기 카프와 카프의 담론장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후쿠모토이즘(福本主義)을 전술 이론으로 선택한 ML계 인물들이었다. 김기진은 당시 ‘카프 동경지부로부터 신간회의 지도를 받게 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후쿠모토이즘의 이론적 암송을 잘했던 비기술적인 의식 분자들이 많았고, ‘이 시기 카프 내부의 모순이 예술가적 전문성과 후쿠모토주의에 영향을 받은 정치 조직 사이의 모순에서 발생했다³⁸⁾고 후술했다.

35) 「(비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 대표 김영만신고서」(1928.3.), 이창주 외, 『조선공산당사(비록)』, 우리시대, 2010, 150-151면.

36) 이 글에서 송영은 당시 도쿄에서 교류한 사람 중 하나로 손필원을 거론하는데, 이는 하필원의 오기로 보인다. 송영, 「東京, 回顧, 東京-二週間の電光的記録」, 『대조』 제2호, 대조사, 1930.4, 53면.

37) 「東京에 印刷所」, 『조선일보』, 1925.1.20.

실제로 카프 「동경지부 보고」(1927년 10월) 2항에는 ‘신간회 지지의 건 가결’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³⁹⁾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시기 ML계가 카프의 주도권을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카프 동경지부를 창설하고 출판부를 담당했던 이북만이 신간회 도쿄지부에서 활동했다는 점도 의미심장하다.⁴⁰⁾

이북만, 장준석, 이우적(이응규), 홍효민, 최병한, 임화, 윤기정, 조중곤, 홍양명 등이 『예술운동』의 필진으로 참가하면서, 소위 동경 소장파라 불리는 ML계 인사들이 카프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떠올랐다. 박영희를 제외하면 이들은 모두 후쿠모토이즘을 추종하던 제3전선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었으며,⁴¹⁾ 박영희조차도 이 잡지에서 ‘To Be의 문학에서 To Do의 작품행동’⁴²⁾으로 작품이론을 선화하기에 이른다. 필진으로 참여한 나카노 시게하루(中野中治, 1902-1979) 역시 후쿠모토의 이론을 지지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니 당시 카프가 지향하는 사상적 노선은 매우 분명했다. 이북만은 카프의 운동이 ‘분열적 배타적, 조합주의적이 아니라 대중적이어야 하고, 민족적 단일당으로 총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초안」의 주장을 거듭 반복한다.⁴³⁾ 이것은 노동총동맹, 청년동맹 등 다른 대중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카프를 민족적 단일당인 신간회의 지도 정신에 통제되는 대중적 조직으로 선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주장은 당시 일본공산당 재건운동의 핵으로 떠올랐던 후쿠모토이즘이 카프의 조직이론으로 수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8) 김팔봉, 「『카프』의 過誤의 根底」(六), 『동아일보』, 1934.2.2.

39) 「本部報告」, 『예술운동』, 앞의 책, 53면.

40)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338면.

41) 임규찬, 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Ⅲ-제1차 방향전환과 대중화 논쟁』, 태학사, 1990, 15-21면.

42) 박영희, 「無産階級藝術運動의 政治的役割-『悲痛한 呼訴에서 潑刺한 鬪爭에』」, 『예술운동』, 앞의 책, 7면.

43) 이북만, 「藝術運動의 方向轉換론은 果然 真正한 方向轉換론이었던가?」, 『예술운동』, 위의 책, 19-25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송영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 역시 그러한 관계망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벌나라와 개미나라가 ‘강하고 편안해서 굶는 놈도 나쁜 놈도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통합된 사회로 그려질 수 있었던 것은 벌과 개미들의 공동 노동과 공평한 분배가 개개인의 본능에서 비롯되는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임금(王)이라는 ‘강력한 지도자’의 지휘 아래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발적 공유와 분배를 중요시여겼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과 명백하게 달라지는 지점이자, 개인의 자유의지를 크로포트킨의 사상으로 번역했던 오스기 사카에의 인식과도 결별하는 지점이다. 또한 직전 시기 일본공산당의 주축이었던 사카이 도시히코나 야마카와 히토시의 조합주의적 견해와도 갈라선 것이다. 개인의 자발성, 자유의지를 삭제함으로써 아나키즘과 조합주의에 대한 폐기를 주장하며 새로운 운동 방향을 제시했던 재편된 카프, 그들의 조직이론으로 수용된 후쿠모토이즘이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임화는 ‘아나키즘은 개인의 의식만이 사회 전체의 의식 혹은 그 존재를 형성하고, 자유가 오기 전에는 단결을 부정한다⁴⁴⁾고 설명했다. 일본과 다른 물질 조건을 가진 식민지 조선에서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로 공동전선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술적 측면에서 단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아나키즘은 비판과 축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에서 스쳐 지나간 ‘검둥이 모기대장의 반란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등장 인물란에 “모기대장썩썩바리 검둥이 外 二人)”으로 검둥이 모기대장의 출현이 표기된 것으로 보아 아마 송영은 이 검둥이 모기대장을 극에 등장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극에서 등장하지 않고 모기왕과 모기대신의 대화 속에서만 재현된다.

www.kci.go.kr

44) 임화, 「分化和 展開(六)-目的意識 文藝理論에 序論의 導入」, 『조선일보』, 1927.5.21.

왕.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은 말이 못되지.

대신. 그럼요 「핏」내도 말느고 핏 산도 영성해졌습니다. 장사군도 피가 업서서 사고 팔 것이 업스며 소리군, 재조군도 피가 업서서 식진들만 헛담니다.

왕. 그럼 큰일 낫구나 군사는 ……

대신. 군사는 절썩마리大將놈 때문에 수천 명이 떨시가 되고 쏘 저번에 깎둥이 大將놈이 반해서 다라날 썩 수천 명이 싸라가고 지금에는 불과 五六百명에 불과합니다.⁴⁵⁾ (밑줄-인용자)

‘깎둥이 대장은 반(反)해서 달아났다. 그는 지배계급의 폭압을 참지 못해 혁명을 주도하고 성공시킨 인물이 아니라, 도망친 인물이다. 내면의 분노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 상부를 공격하지 못한 채 그저 달아난, 이 깎둥이 대장의 사건은 임화의 표현을 빌자면, ‘반항 의식일 뿐 계급의식이 아니며, 자본가 계급에 대한 감정 작용⁴⁶⁾일 뿐이다. 상부를 바꾸는 직접적 정치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깎둥이 모기대장의 반(반역)은 혁명이 될 수 없다. 카프 내부에서 아나키즘의 폐기가 논의되던 1927년 후반기의 시점에서 도망친 깎둥이 모기대장이 생존하고, 그에 의해 어디에선가 새로운 모기사회가 건설된다면 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후쿠모토이즘의 관점에서 개인적 반항으로 건설된 모기나라는 건설될 수도 건설되어서도 안 되는 곳이었다. 세상에서 모기가 사라졌다는 결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인적 반항은 반역의 실패로, 모기 종족이 소멸되는 이유에 한 가지 결을 덧붙인다. 아나키즘적 반항의식이 사회주의 변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작품을 통해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45) 송영, 〈모기가 업서지는 까닭〉, 앞의 책, 84면.

46) 임화, 「分化와 展開(三)」, 『조선일보』, 1927.5.18.

모기의 멸종과 관련해 한가지 단서가 더 남아있다. 크로포트킨의 개미와 벌이 공동노동과 공동분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생태적으로 무리를 이루며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기는 무리를 이루며 사는 곤충이 아니다. 아나키즘의 관점에서 개미와 벌의 공동체는 자발적이고 느슨한 개인들의 연합에 가깝다. 그러나 송영이 그려낸 개미와 벌의 세계는 강력한 지도자에 의해 통합된 곳으로 '나라'로 표현되는 일종의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생태적으로 무리를 짓지 않는 모기는 조직운동의 관점에서 조직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대상이다.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대 권력에 대한 동시적 투쟁을 목적으로 했던 식민지 사회주의, 좁혀서 재편된 카프의 입장에서 무리짓지 않는 생태적 특성을 가진 모기는 처음부터 조직화될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모기나라의 존립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해 반항하는 문학, 이른바 아나키즘에 기반한 문학운동을 수정, 폐기하고 사회주의 유토피아의 조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재편된 카프의 첫 기관지 『예술운동』 창간호에 실렸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1927년 전반기 카프 내부에서 벌어졌던 아나키즘 논쟁과 그 논쟁의 결과로 아나키즘의 축출이 이 작품을 통해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편된 카프 지도부는 자유의지로부터 산출된 개인들의 집산적 연대가 아닌, 그 개인을 하나로 모으고 지휘할 수 있는 강력한 지도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고, 신간회와 같은 공동전선은 식민지적 특수성 아래, 제국주의로부터 계급해방과 민족해방이라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서, 부르주아민주주의를 획득하기 위한 단계에서 필수불가결한 전술로 제시된 것이었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카프의 새로운 방침을 크로포트킨의 '곤충의 이상적 생태'를 빌려와 후쿠모토식 관점에서 수정해나갔음을 보여준다.

4. 후쿠모토를 경유한 레닌과 송영의 초기 희곡

카프 방향전환의 이론적 노선으로 후쿠모토이즘이 실은 레닌에 대한 후쿠모토 가스오의 해석, 즉 후쿠모토의 레닌주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은 후쿠모토의 레닌주의가 실제 레닌의 이론과는 상이했음을 의미한다.⁴⁷⁾ 레닌의 조직론이 러시아의 특수한 상황에 기반해 제출된 것이라면, 후쿠모토의 레닌주의는 일본의 실제 현실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관념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가까웠다. 또한 일본 공산당 내의 권력 획득에 주력했던 후쿠모토가 레닌 번역에서 집중한 것은 조직론이었지 예술론이 아니었다. 이 시점에 카프가 문학운동이나 예술운동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은 재편된 카프 지도부가 조직 이론의 관점에서는 통일된 주장을 펼치고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 기반한 예술적 실천 전략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레닌(Vladimir Il'ich Lenin, 1870-1924)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자생적 투쟁은 강력한 혁명이 조직의 지도를 받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계급투쟁이 되지 못한다⁴⁸⁾고 주장했다. 이는 경제투쟁에서 정치의식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라는 경제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자, 노동자 계급의 의식층 조성을 위한 직업혁명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또한 레닌은 러시아 사회민주주의당이 역사적으로 3기의 단계에 도달했으나 경제투쟁에 집중해 당 내부에서 분열과 해체, 동요가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3기의 청산”을 주장했다.⁴⁹⁾ 청산을 통해 새

47) 후쿠모토의 레닌 독해에 대한 비판은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이토 아키라, 후지이 다케시 옮김, 「후쿠모토주의에 대한 비판-스탈린주의로의 전기(轉機)」, 『역사연구』 제18호, 역사학연구소, 2008.

48) Lenin, Vladimir Il'ich, 최호정 옮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출판사, 1999, 175면.

49) Lenin, Vladimir Il'ich, 위의 책, 232-236면.

로운 당으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 레닌의 당 조직론은 ‘집권적 조직에 의해 소수 의식자와 대중이 혁명적 사상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결합 전에 먼저 깨끗이 분리해야 한다’는 후쿠모토의 ‘분리·결합론’으로 탄생한다.⁵⁰⁾

후쿠모토를 경유한 레닌의 조직론은 카프 동경 소장파(제3전선파)에 의해 방향전환론의 핵심 이론으로 수용되었다. 임화가 아나키즘의 분리와 축출을 주장한 목적의식적 “분화와 전개”는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것이었다. 강력한 지도부의 존재가 조직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의 논리 역시 이러한 조직론에 기초하고 있다. 같은 지면에 실린 윤기정의 소설 <압날을 위하여>에서는 영호와 정일이 식민지 조선인의 지도자로 재각성하는 과정이 좀더 직접적으로 드러난다.⁵¹⁾

제1차 방향전환 시점에서 카프는 문학에서의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카프 지도부가 부정하고 있던 문학적 경향은 명확하다. 이북만은 ‘현실 재현에 그쳤던 19세기 자연주의 작가들과 달리,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문제를 작품화시켜 신간회의 정치투쟁으로까지 끌어낼 수 있는 작품⁵²⁾을 요구했다. 임화는 ‘니힐리스트, 다다, 미래파, 표현파 등 근대의 특유한 소산인 반항군⁵³⁾적인 경향이 아닌, ‘비본격적, 포스터적, 선전적⁵⁴⁾인 작품일지라도 그것이 ‘프롤레타리아의 생활의지에 봉사하는 작품⁵⁵⁾이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반항이 아니라 투쟁을 위한 힘찬 의지”인 것이다. 카프 지도부가 제시한 이러한 기준은 카프 내부에서 김영팔의 지위를 격하시킨 원인이었다. 송영이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을 통해 아나키즘을 수정하고 후쿠모토 식으로 번역된 레닌의 조직론을 받아들였을 때, 김영팔은 1927년부터 발표한 작품마다 비

50) 이토 아키라(2004), 앞의 글, 349-350면.

51) 윤기정, 「압날을 위하여」, 『예술운동』, 앞의 책, 200-208면.

52) 이북만, 앞의 글, 21면.

53) 임화, 「分化和 展開(二)」, 『조선일보』, 1927.5.17.

54) 임화, 「分化和 展開(六)」, 앞의 신문, 1927.5.21.

55) 임화, 「錯覺의 文藝理論(二)-金華山氏의 愚論檢討」, 『조선일보』, 1927.9.7.

판을 받기 시작했다. 이북만은 ‘과거 소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봉건제도에 반항하는 희곡은 그때에 있어서만 유용한 것, 지금은 하등의 소용이 없다’⁵⁶⁾며 김영팔의 <부음>⁵⁷⁾을 비판했다. ‘싸우러 떠나는 경수의 울음과 정숙과 숙자의 눈물, 그리고 무대의 침묵은 투쟁의 힘찬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만다. 김영팔은 무대에 ‘레닌과 트로츠키의 사진을 걸어놓는 과감성을 보였으나, 그렇다고 이 작품이 레닌주의에 입각한 작품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 “와 하는 소리”, “손뼉 고함”으로 끝나는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의 결말에는 미미하지만 분명 역동적 힘이 존재한다.

문제는 ‘합법적 정치투쟁을 지향하고 있었던 신간회를 지지하고, 신간회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⁵⁸⁾는 이북만을 비롯한 카프 지도부의 입장에서,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 투쟁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작품이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연극운동도 당연히 합법적 공연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쓰키치소극장에서 개최된 노동농민당 주최 ‘노농의 저녁(勞農の夕)’ 행사에서 프롤레타리아극장(プロレタリア劇場)의 연극을 관람한 김무적은 히사이타 에이지로(久板栄二郎, 1898-1976)의 <명령하나(命令一)>를 두고 ‘이것이 과연 우리의 바라는 무기의 예술이 아닐까라며 감탄했다. 그는 이 작품이 ‘일본 사회에서 장차 일어날 제너럴 스트라이크를 배경으로 하고, 계급투쟁의 광경을, 무산계급의 단체적 심리를 폭풍우같이 그려냈기에 무대와 관객석이 합성으로 뒤덮였다’⁵⁹⁾고 쓰고 있다. 작품행동이라는 차원에서 이 연극이 보여준 역동성과 정치행동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다. 신간회의 정치투쟁은 합법적 활동이었기 때문에 검열을 전제로 한다. 김무적이 본 프롤레타리아극장의 공연 역시

56) 이북만, 「小부르조아의 亂舞에 對하여(三), 『중외일보』, 1928.5.2.

57) 김영팔, <語音>, 『문예시대』 제2호(특집호), 문예시대사, 1927.1.

58) 이북만, 「藝術運動의 方向轉換은 果然 真正한 方向轉換은이엇든가?」, 『예술운동』, 앞의 책, 21면.

59) 久保榮二郎은 오자. 김무적, 「푸로레타리아劇場 公演을 보고」, 『예술운동』, 위의 책, 40면.

검열을 거쳐 합법적으로 공연된 것이었다.

우리 프롤레타리아극장은 모든 강압에 반항하여 피압박 민중의 극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RA미술부의 제작은 모든 면적을 적색으로 물드리고 있다. 그것들은 모든 정치적 피압박 민중 프롤레타리아 농민 소시민 병졸 부인 학생 식민지 인민 등등 가운데서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분기시키고 있다. 그것은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적 조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⁶⁰⁾

나카노 시게하루는 프롤레타리아극장의 활동에 대해 위와 같이 적고 있는데, 이렇듯 무대의 모든 면을 적색으로 물들이며 대중의 울분을 분기시키는 연극이 합법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식민지 조선과 달리 느슨했던 검열 환경의 차이 때문이다.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극장과 같은 활동은 식민지 조선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송영도 프롤레타리아극장 무대면의 역동적인 붉은색을 동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의 무대는 “매우 음울한 수풀 속”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 희곡을 공연한다면 무대의 상당 부분은 붉은색으로 칠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왕. 어서 도라와야지…… 저렇게 창고 쪽에 「피」는 말르고 궁궐의 대
들보에는 색칠한 「피」가 다 베껴졌스니까.⁶¹⁾ (밀줄·인용자)

프롤레타리아극장은 사회주의를 상징하는 붉은색으로 무대의 전면을 뒤덮으면서 관객의 가슴을 끓어오르게 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식민지의 무대에서 모기의 피라는, 그것도 우스꽝스럽게 형상화된 모기들의 말라붙은 피라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붉은색이라도 끓어 죽어 가는 모기 피의 말라붙은 붉은색은 검열관의 시선에 하찮은 미술적 효과

60) 中野中治, 『日本프롤레타리아藝術聯盟에 對하여』, 『예술운동』, 위의 책, 29면.

61) 송영, <모기가 업서지는 까닭>, 위의 책, 82면.

정도로 비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작 모기의 피에서 그 어떤 불온함을 감지하기란 과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은 어쩌면 고도로 압축된 카프의 정치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덧붙여, 작품에서 반역자를 검둥이로 묘사하고 있는 점도 흥미롭다. 이것은 식민지 원주민의 저항운동에 대한 암시로 해석할 수 있다. 검둥이의 반역이 실패했다는 것은 식민지의 저항운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구호를 요청한 모기들이 '동물원에 갇혔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동물원이 식민지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식생의 생물, 심지어 원주민까지도 구경거리로 전시함으로써 제국주의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제국주의가 이용했던 진화론의 관점을 빌자면, 사회주의(프롤레타리아 독재) 역시 역사 발전의 단계에서 자본주의나 제국주의보다 진화된 사회이다. 따라서 “놀고 남의 피만 빨아 먹는 나쁜 놈들은 생전 처음 구경하는” 미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국주의의 진화론을 역으로 이용해 자본주의 지배계급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다.

후쿠모토에 대한 코민테른의 비판과 제명(1927) 이후, 후쿠모토이즘으로 경사되었던 카프의 노선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었다. 홍양명은 '후쿠모토이즘을 보편적 이론으로 알고 맹목적으로 이식하려 했다'며 '조선 운동에는 있지도 않은 절충주의·경제주의를 토벌하겠다고 호령하는 것은 후쿠모토가 야마카와 등을 절충주의·경제주의라고 공격하는 논조의 무의미한 이식적 독백, 쓸데없는 모방⁶²⁾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자인한다. 이제 카프의 문학운동은 식민지 조선이라는 물적 조건과 식민지 조선인이라는 특수한 입장에 대해 이야기해야 했다. 그것은 후쿠모토에 의해 번역된 레닌주의가 아니라 실제 레닌의 조직론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도 했다. 이것은 민족적 특수성과 식민지의 특수성을 인정한 레닌과

62) 홍양명, 「朝鮮運動의 特質(六)-翻譯主義의 克服과 特殊朝鮮의 認識」, 『조선일보』, 1928.1.17.

코민테른의 지시와도 무관하지 않다.

송영도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담아내는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다. 관동대지진 후 도쿄 부흥공사를 따라 다니는 이동 바라크의 비참한 생활을 그린 <정의와 칸바스>(1929)⁶³⁾는 된장국만 주는 현장에서 김치를 먹는 행위를 통해 일본인 노동자와 다른 조선인 노동자를 구별해낸다.⁶⁴⁾ 노동쟁의가 활발했던 1930년 오사카를 배경으로 한 <아편쟁이>(1930)⁶⁵⁾ 역시 일본인 노동자들보다 더 비참한 상황에 놓인 조선인 노동자들의 생활과 서사를 그려냈다. 식민지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 접근법은 송영이 후쿠모토이즘에서 벗어나 원래의 레닌과 만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지식인 직업혁명가를 강조했던 레닌은 노동자로부터 조직되는 혁명가의 역할도 간과하지 않았다. 그는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지식인을 조직하고, 러시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치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정치신문의 역할을 강조했다. 레닌이 주장했던 정치신문은 차르의 집권기에는 비합법적으로, 혁명 이후 다소 느슨한 정치환경에서는 합법적으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동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간회의 지도를 받는 합법적 조직 카프에서 레닌이 말했던 정치신문은 다소 이상적 전술이었다. 송영은 <정의와 칸바스>에서 스케치북을 찢으며 각성하는 미술학교 생도 경옥을 통해 지식인 직업운동가의 탄생을 보여주고, <아편쟁이>에서는 직업운동가로 활동하는 장식천을 등장시킨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팜플렛을 읽으며 새로운 혁명운동가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노동자¹을 구현해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레닌이 제안했던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탄생한 식민지 조선의 혁명운동가의 모습이었다.

63) 송영, <正義와 칸바스>, 『조선문예』 창간호, 조선문예사, 1929.5.

64) 이민영, 「1920년대 프로회곡과 '감정'의 수행성」, 『한국극예술연구』 제30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105-109면.

65) 송영, <阿片쟁이>, 『대조』 창간호, 대조사, 1930.3.

5. 결론

이 글은 카프의 기관지 『예술운동』 창간호에 실린 송영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을 다시 읽음으로써 제1차 방향전환 시기 카프의 운동방침이 작품에 구현된 방식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이다. 그동안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은 송영의 초기 희곡 중에서도 특히 저평가된 작품이었다. 습작기 극작술의 미숙함과 동화극이라는 표제로 인한 장르적 오해가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를 더욱 절하시켰던 것이다. 심지어 이 작품을 아동극으로 오인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는데, 그것은 동화극은 곧 아동극이라는 모순된 등식을 작품 해석에 개입시켰기 때문이다.

카프가 대중 교육에 관심을 가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작품이 발표되었던 1927년 당시 카프 지도부는 아직 대중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형성하거나 대중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1차 방향전환 전까지 카프는 아직 조직으로서 정체성을 획득하지 못했었고, 방향전환 시기에는 현실에서 유리된 후쿠모토이즘을 운동의 이론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중적 실천 방향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 작품은 결코 교육적 성격을 가진 아동극으로 볼 수 없다.

송영의 <모기가 없어지는 까닭>은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담론 장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인식되었던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이 가졌던 권위와 상징성을 후쿠모토이즘이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의 관점에서 해체한 작품이다. 1920년대 초반 사회주의적 인식론은 개인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오스기 사카에와 야마카와 히토시가 번역한 크로포트킨을 수용한 결과 아나키즘적 성향을 질게 가지고 있었다. 송영의 이 작품은 그러한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에서 소개되었던 생물학적 사례인 개미와 벌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그것을 후쿠모토이즘의 관점에서 수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송영은 크로포트킨이 가졌던 권위와 상징성을 효과적으로 해체한다.

제1차 방향전환을 주도했던 제3전선파 중심의 카프 지도부가 이론적 노선으로 선택한 후쿠모토이즘은 후쿠모토 가즈오가 번역한 레닌주의였다. 이 이론은 실제 현실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후쿠모토이즘을 방향전환의 논리로 수용했던 카프 지도부는 실천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조직운동의 방법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특히 이 시기 카프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조직론을 주장했던 것은 후쿠모토이즘이 남긴 문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후쿠모토를 경유해 만난 레닌은 이후, 식민지 조선과 레닌이, 카프와 레닌이, 송영과 레닌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송영의 초기 희곡은 그러한 레닌의 조직론이 문학 작품의 작품행동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1920년대 지배적인 사회주의 인식론이었던 크로포트킨의 아나키즘을 배제하고, 1927년 카프의 제1차 방향전환의 이론적 노선인 후쿠모토이즘을 통해 카프의 조직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작품이다. 또한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사회주의 사상의 수용사적 측면과 사회주의 인식론의 변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는 다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개벽』, 『공제』, 『대조』, 『문예시대』, 『아성』, 『예술운동』, 『신생활』, 『신소년』
 『조선문예』, 『현대평론』

2. 단행본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백 철, 『조선신문학사조사: 현대편』, 백양당, 1949.
 이창주 외, 『조선공산당사(비록)』, 우리시대, 2010.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사상편』, 지식산업사, 2001.
 임규찬, 한기형 편, 『카프비평자료총서Ⅲ-제1차 방향전환과 대중화 논쟁』, 대학사, 1990.
 한국극예술학회 편, 『한국현대극작가론④-송영』, 대학사, 1996.
 Kropotkin, Pyotr, 김훈 옮김, 『만물은 서로 돕는다』, 여름언덕, 2015.
 Lenin, Vladimir Il'ich, 최호정 옮김, 『무엇을 할 것인가?』, 박종철출판사, 1999.
 クロポトキン, 大杉栄 訳, 『相互扶助論(進化の一要素)』 31版, 春陽堂, 1924.
 大杉栄, 『クロポトキン研究』 33版, アルス, 1923. (初版, 1920.)
 堺利彦 編, 山川均 述, 『動物界の道德』, 有樂社, 1908.

3. 논문 및 기타

김미지, 「동아시아와 식민지 조선에서 크로포트킨 번역의 경로들과 상호참조 양상 고찰」, 『비교문화연구』 제43집,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
 박양신, 「근대 일본의 아나키즘 수용과 식민지 조선으로의 접속-크로포트킨 사상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35집, 일본사학회, 2012.
 박종린, 「1920년대 크로포트킨의 수용과 『청년에게 호소함』의 번역」, 『사학연구』 제142호, 한국사학회, 2021.
 이만영, 「1920년대 초 사회주의 비평 담론과 진화론 인식」, 『현대소설연구』 제78호, 현대소설학회, 2020.
 이만영, 「1920년대 프로히곡과 ‘감정’의 수행성」, 『한국극예술연구』 제30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이승진, 「전전 재일조선인 문화운동의 발아와 전개-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의 맥락에서」, 『일본연구』 제30집,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8.

이형국, 「신간회 창립 전후 사회주의자들의 민족협동전선론」,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집, 한국근현대사학회, 1997.

임 혁, 「송영 문학에 나타난 ‘체험’ 과 현실인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전상숙, 「제국과 식민지의 ‘정치투쟁’ 과 ‘경제투쟁’ 의 함의와 문제-후쿠모토이즘과 정우회선언의 한일 사회주의 ‘방향전환’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9권 1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0.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相互扶助論』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9집, 중국사학회, 2005.

최규진,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신간회 정책」, 『대동문화연구』 제32집,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1997.

이토 아키라, 후지이 다케시 옮김, 「후쿠모토 가즈오의 사상-공산주의운동의 전환과 그 한계」, 『역사연구』 제14호, 역사학연구소, 2004.

_____, 「후쿠모토주의에 대한 비판-스탈린주의로의 전기(轉機)」, 『역사연구』 제18호, 역사학연구소, 2008.

Abstract

From Kropotkin to Lenin
—Re-reading of Song Young's *Why Mosquitoes Are Extinct*

Lee Minyeong

This article is a study that examines KAPF's theoretical line at the time of the first direction change of KAPF and how it was implemented in Song Young's play by re-reading Song Young's "*Why Mosquitoes Are Extinct*" (1927.11.), which was included in the first issue of KAPF's *Art Movement*.

In the meantime, the work has been particularly valued low among Song Young's early plays. Due to the reason that it was a work during early writing and the genre mark of a fairy tale play, the work has been understood the work with poor literary value. However, the work can be found to have really meaning, considering the acceptance context of Kropotkin in the colonial Joseon in the 1920s, the Bolshevism and Anarchism debate inside KAPF in 1927, and the theoretical line of the Marxist-Lenin Group(Third Front Group), and KAPF's organization movement and Lenin's organization theory.

The work shows how Kropotkin's theory of Mutual Aid, which was enthusiastic by socialists in the early 1920s, was being mod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KAPF leadership, which excludes Anarchism and Unionism. It also provides clues to the way Lenin's organization theory via Fukumoto, was implemented in Song Young's early plays. In addition, through the work,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impact of the Kropotkin translation by Osugi Sakae and Yamakawa Hitoshi and Lenin's translation by Fukumoto Kazuo on the socialist movement of colonial Joseon and the organization movement of

KAPF in the 1920s.

Therefore, Song Young's "*Why Mosquitoes Are Extinct*" should be reevaluated as an important work that can examine the acceptance aspect of socialist theory in the 1920s and the change of socialist epistemology.

Key words: *Art Movement*, Fukumotoism, KAPF, Kropotkin, Lenin, Mutual Aid, Song Young, *Why Mosquitoes Are Extinct*

접 수 일: 2022년 11월 14일

심사기간: 2022년 11월 17일~2022년 12월 9일

게재결정: 2022년 12월 19일